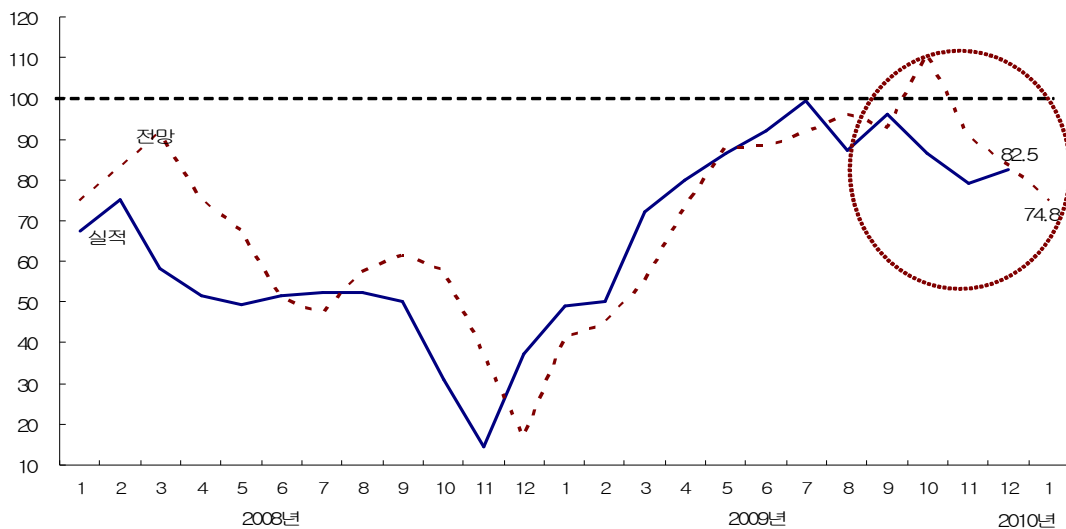


2009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2월 CBSI, 계절적 요인 영향 소폭(3.2p) 상승

-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소폭(3.2p) 상승했으나, 지수 자체는 전고점인 작년 7월 수준에 크게 못 미쳐 하반기 재정효과가 줄어든 가운데 아직까지 민간부문의 건설경기 회복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3.2p 상승한 82.5를 기록함.
- 이로써 작년 10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16.8p 하락)하던 지수는 3개월만에 하락세를 멈춤.
- 12월 지수 상승은 12월 공공 발주물량 증가에 따라 통상 나타나는 계절적 상승 요인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 그러나 지수 상승폭이 3.2p에 그쳐 전고점인 작년 7월의 99.3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 재정효과가 줄어든 이후 아직까지 민간부문의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나타냄.
- 1월 전망 지수도 12월 보다 7.6p 하락한 74.8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나 민간 건설경기의 회복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계절적 상승 요인이 사라져 한 달만에 지수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만약 2010년 SOC 예산의 조기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간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건설경기가 다시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크게 상승해 1개월만에 다시 기준선을 회복하고, 중소기업 지수도 소폭 상승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10.7p나 하락해 부진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9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1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50.0	72.3	80.0	86.6	92.2	99.3	87.2	96.1	86.4	79.3	82.5	83.6	74.8
규모별	대형	58.3	84.6	83.3	100.0	92.3	114.3	107.1	114.3	100.0	84.6	100.0	84.6	92.3
	중견	40.6	66.7	91.9	78.1	97.2	105.9	100.0	110.0	103.4	88.5	77.8	96.0	74.1
	중소	50.8	64.4	62.5	80.5	86.4	74.2	49.3	59.0	50.9	62.7	67.2	68.3	55.2
지역별	서울	50.9	78.0	89.7	97.5	93.9	114.6	102.7	103.0	102.2	85.7	90.6	88.7	85.2
	지방	48.5	63.8	65.0	66.5	83.6	69.8	64.2	71.1	64.6	69.5	70.2	75.9	59.2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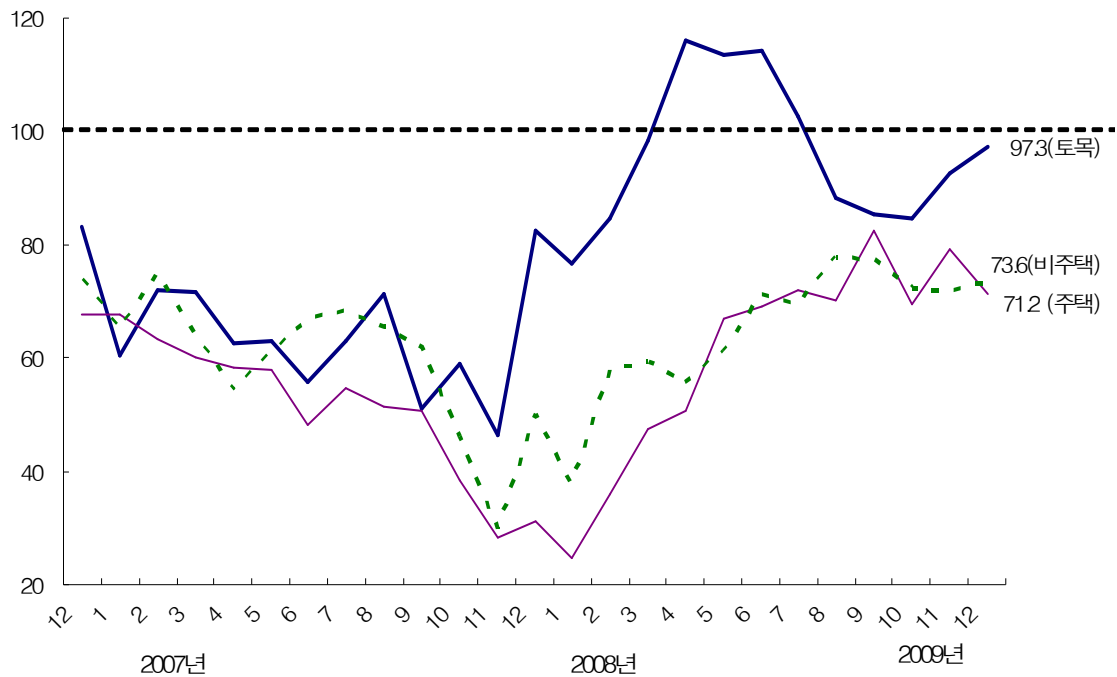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15.4p 상승한 100.0을 기록해 12월 지수 상승을 주도했으며, 지난 11월 지수가 5개월만에 기준선 아래로 하락한지 1개월만에 다시 기준선을 회복함.
- 중소기업 지수도 전월대비 4.5p 상승한 67.2를 기록했는데, 이는 대형업체와 마찬가지로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10.7p나 하락한 88.5를 기록해 3개월 연소 지수가 하락했는데, 이는 연말 공공 발주물량 증가로 인한 수혜가 대형, 중소기업체에 비해 적었을 뿐 아니라 중견업체의 경우 대형, 중소기업체에 비해 주택사업에 대한 매출비중이 높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아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됨.
- 건설업체들의 공공 및 해외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가운데 주택사업의 실적은 여전히 부진하여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견업체의 체감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전월대비 4.9p 증가한 90.6을 기록하였으며, 지방업체 또한 전월대비 0.7p 증가한 70.2를 기록함.
 - 서울업체 지수가 전월대비 상승한 것은 대형업체 지수가 상승한데 따른 결과임.
 - 지방업체 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0.7p) 증가한 것은 중견업체의 지수 하락의 영향보단 중소기업체의 지수 상승 영향이 다소 컸기 때문임.
 - 서울과 지방업체 지수가 동시에 상승했음에 불구하고 지수 간에 차이가 30p 이상 나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2010년 1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12월보다 7.7p 감소한 74.8로 전망됨.
 - 업체 규모별로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와 중견업체는 각각 92.3, 74.1으로 전망하였으며, 중소기업체는 55.2로 전망함.
 - 지역별로 서울업체는 지수가 12월보다 소폭(-5.4p)감소한 85.2로 전망하였으며, 지방업체는 침체 정도가 다소 큰(-11.0p) 59.2로 전망함.

공사물량지수, 전월대비 6.3p 하락한 82.8 기록

- 공사물량지수는 전월대비 6.3p 하락한 82.8을 기록했는데, 공종별로는 토목, 비주택물량 지수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주택물량 지수는 하락함.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대비 4.7p 상승한 97.3을 기록해 연말 발주물량으로 인해 물량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비주택 물량지수는 역시 전월보다 소폭(1.5p) 증가한 73.6을 기록함.
 - 반면,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7.9p 하락한 71.2를 기록함. 8월 이후 지수가 70~80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대·중·소 업체 규모별 물량지수는 각각 100.0, 85.2, 60.0을 기록, 대형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중견과 중소기업체는 물량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10월보다 7.7p 감소, 100.0을 기록했으며,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했으나 중견과 중소기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물량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중견업체의 물량지수는 주택물량지수의 부진(전월대비 22.6p 급락한 65.4를 기록)으로, 전체지수가 전월대비 11.0p 하락한 85.2를 기록함.
 -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토목물량지수의 약진(전월대비 11.5p 증가한 77.6 기록)으로 전월대비 0.7p 증가한 60.0을 기록함.
 - 중소기업체 물량지수의 증가는 연말 소규모 공공 공사 발주증가와 그동안 지수 부진에 의한 통계적 반등 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 중소기업체 지수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가장 저조해 물량 침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건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82.8	100.0	85.2	60.0	95.3	64.1
	전망	71.8	92.3	69.2	50.8	79.1	60.4
토목	실적	97.3	115.4	96.0	77.6	113.6	72.2
	전망	73.9	92.3	76.0	50.0	84.4	57.9
주택	실적	71.2	92.3	65.4	52.9	82.2	53.8
	전망	66.7	100.0	60.0	35.3	81.3	44.8
비주택	실적	73.6	100.0	65.4	51.9	88.1	51.6
	전망	68.1	92.3	61.5	47.2	78.8	50.9

주 : 실적은 2009년 1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0년 1월 예측지수임.

- 서울업체 물량 지수는 전월대비 8.2p 하락한 95.3을 기록하여 2009년 3월(88.6)이후 9개월 만에 지수가 다시 기준선 이하로 하락함. 지수가 하락한 것은 주택물량 지수의 침체(전월대비 11.3p 하락) 때문임.
- 지방업체 물량 지수는 전월대비 3.4p 감소한 64.1을 기록함. 토목물량이 11월 보단 소폭(3.0p) 증가했으나, 주택과 비주택 물량이 전월보단 부진(각각 3.2p, 5.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1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2월보다 11.0p 감소한 71.8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연말 공사물량 대비 연초 공사물량이 작은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인력/자재수급 상황 아직까지 양호한 가운데,
12월 들어 자금 관련 상황 다소 개선**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아직 양호한 가운데, 인건비 및 자재비로 인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금관련 상황은 12월 들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공공공사 수주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간공사 수주가 저조해 국내 건설수주가 10월까지 전년동기비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105.3, 102.3을 기록하며 수급상황이 아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지수는 기준선인 100에 조금 못 미친 94.6을 기록해 상황이 조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고, 자재비 지수가 91.4를 기록해 작년 상반기 이후 급등한 자재비로 인해 아직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작년 4/4분기 이후 80선에 머물며 악화되었던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가 각각 100.8, 95.8을 기록해 연말 공공공사 발주물량 증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자금관련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총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금	실적	100.8	100.0	103.7	98.3	102.1	98.7
		전망	88.4	100.0	85.2	78.3	94.0	79.8
	자금조달	실적	95.8	100.0	100.0	86.0	100.0	89.4
		전망	91.4	100.0	92.6	80.0	94.0	87.5
인력	수급	실적	105.3	100.0	118.5	96.6	108.5	101.9
		전망	104.1	100.0	114.8	96.6	107.2	100.7
	인건비	실적	94.6	100.0	103.7	78.0	101.3	84.7
		전망	91.4	100.0	92.6	80.0	97.0	83.0
자재	수급	실적	102.3	100.0	103.8	103.4	100.0	107.4
		전망	100.8	100.0	103.7	98.3	100.0	103.2
	비용	실적	91.4	100.0	96.3	75.9	97.0	84.7
		전망	90.3	100.0	100.0	67.8	98.3	79.9

주 : 실적은 2009년 1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0년 1월 예측지수임.

끝.